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루게 제2597호]

주제 109
(2020)년 6월
6일
토요일
음력 윤4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

지난 5월 31일 《탈북자》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반공화국베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사대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의 담화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베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는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합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덤하게 돌아댈것이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정말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그 바보들이 개념없이 《핵문제》를 론하자고 접어뜨니 서당개가 풍월을 짓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 것이다. 태몽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 것이 저런 것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쫓아내는 것들을 두고 볼까 하지 않을 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 다니며 똥쓸지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게 대한 비방증상을 꺼리낌 없이 해낸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물고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베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렇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리해하기 어렵다.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으로 물들부터 똑바로 쫓아내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오는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고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폐쇄가 될지, 있으나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랑림될 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주제109(2020)년 6월 4일 평 양

대결광신자들 구린하에

추악한 개지랄을 부린다

인간쓰레기들이 또다시 악의에 찬 반공화국베라들을 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더우기 참수수 없는 것이 가장 너절한 인간추물들이 감히 반공화국내로 신성한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것이다. 이 추악한 개지랄에 앞

장서 날뛰는자들이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이다. 이자들로 말하면 한때는 무로교육, 무상치료 등 고마운 사회주의시책이 좋다고 만세를 부르다가 공화국이 내외원수들의 발악적책동으로 일시 곤난을 겪게 되자 일신의 안락과 부귀를 위해 부모

형제들은 물론 태몽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범죄자, 반역자들이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물욕을 없애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을 없앨 때만 4대계명을 계율로 하는 우리 친도교인들은

이런자들을 인간오작품으로 락인하며 타매한다. 미친놈은 미친것만 한다고 이런 인간추물들은 지금이 시각에도 남쪽에서 너절한 행위만 일삼고있다. 인간이기를 그만두고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우리 친도교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배반도주하여

남의 집 처마밑에 기여든 인간추물들이 활개치며 못된 짓을 다하고있다. 며칠전 우리 제도를 동진 《탈북자》쓰레기들이 감히 반공화국내로 수십만장의 베라를 날려보내는 추태를 부렸다. 조국을 배반한 한중도 안되는 속물들이 아무리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긴다면

황실수설해야 탈박에 개짓는 소리에 아부것도 아니다. 개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합부로 입부리를 놀려대는데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암묵적인 비호와 두둔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태를 묻은 조국을 버린 배반자나 남조선당국자들이나 한동아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가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

히 여기고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에 앞서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다

얼마전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신기신 기여나와 빌려댄 망랑짓에 대한 보도를 듣고 격분을 금할 수 없었다. 개도 닷새만 기르면 자기 주인을 안다고 했는데

선의를 버려두고

남조선에서는 찍하면 《자유》, 《자유》한다. 이번 《탈북자》쓰레기들의 망동이 전민적적인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지금이 시각에도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개인의 자유》니 하는 말까지 않는 썩어빠진 개지랄이 저러고 있는 남조선이다. 기여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있다.

구 날치도록 내버려두고 기여 목인비호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다. 《탈북자》들의 개소리이자 동족을 적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

조선당국자들의 녀두리이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먼저 시도 때도 없이 황실수설하는 미친개무리들의 주동이부터 단단히 틀어막아야 한다.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박성국

민족을 우롱하는 《자유》라령

기여도 《자유》라며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우롱이다. 지금 미친 베라살포 망동을 부리는자들은 《탈북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 몇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다. 제가 나서 자란 고향과 나라를 배반하고 도주하여 자기들의 배가 고프게 주저하며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는 이런 똥개들이 갖는 소리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다. 나서자란 공화국에

서도 저주받고 남조선에서도 말쑥과 소동만 일으켜 못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너절한 자들의 일간 망동, 비렬한 반민족적행위가 과연 《자유》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 민족의 운명문제, 통일문제보다 한갓 똥개들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비뚤어진 남조선사회, 그러니까 조국해방 75돐이 되어오는 오늘날까지도 친일매국노들이 제세

상처럼 활개치고 《올사오적》들이나 할 수 있는 상상 못할 친일범죄행위도 백주에 벌어지고있는 것이다.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고 온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그따위 똥개들에게 《자유》의 패쪽을 목에 매달아줄 것이 아니라 없애치워야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김수철

조국소식

황주진등물길공사 착공, 10만산발파 진행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과 농촌수리화정책에 따라 대규모의 황주진등물길공사가 착공되었다. 황해북도의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길공사는 수백리 자연호름식 물길을 조성하여 드넓은 황주진등비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황해남도물길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건설자들이 조국번영의 만년재

부를 또다시 창조해갈 열의 드높이 공사착공을 알리는 10만산발파의 장쾌한 피성을 올리였다. 발파를 맡은 황해북도려단에서 흠뻑물길건설에서 발파구역을 바로 정한데 맞게 긴축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발파효율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고 암질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물길공사의 돌파구를 열 어찌는 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한 려

단지의 건설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등을 보장하여 수정갱, 가지갱굴진, 장약실질기 등 일일정비작업과제를 120%이상 해제하고 운전자들도 자검자수체계를 세우고 가동률을 높여 필요한 물동량을 제때에 수송하였다. 불리한 암질조건에 맞게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고 교대사이 협동을 강화한 결과 발파준비사업이 짧은 기간에 결속되었다. 모든 준비가 빈틈없이 완료된 속에 2일 10만산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들 광범히 선전보급

중앙 과학기술통보사에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선전보급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있다. 근로자들을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데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보봉사활동을 혁신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과학기술잡지와 도서를 출판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최신자료들을 신속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최신과학기술성과와 발전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10여종의 새 기술잡지 및 도서들이 편찬되었다.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근로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도서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잡지, 과학기술자료들은 독자층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상식자료들이 입력되어있는 관형컴퓨터 및 손전화기응용프로그램들도 사용자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의 가을로 이어질 대규모관개망

황해남도물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사업,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물길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황해남도의 관개용수문제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 추켜세우는데서 물길건설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온 나라를 대자연개조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다. 그리하여 2012년 1월 황해

